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귀에 거슬리는 말일수록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한다.
- ②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한다.
- ③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중시해야 한다.
- ④ 남의 잘못을 받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 ⑤ 당장의 도움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물음) 여학생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군요.
- ② 물리적 인과 관계에 따라 목적을 정한다는 거군요.
- ③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거군요.
- ④ 목적이 없어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 ⑤ 목적이 정해지면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군요.

3. (물음) 학생의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우주 기지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모형을 연구하였다.
- ② 과학자들은 자족적 환경 모형을 만들어 그 실현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 ③ 자족적 환경 모형 연구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상품이 만들어 졌다.
- ④ ‘에코스피어’는 지구의 바다, 땅, 대기, 생물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순환의 균형이 깨지면 유지되지 못한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전시회 포스터의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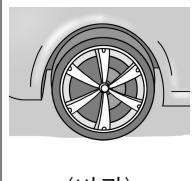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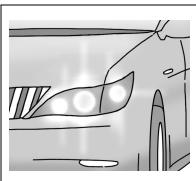
- ① 어느 민속학자의 그림,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다
- ② 옛 그림으로 감상하는, 개화기 조선인의 삶의 모습
- ③ 조선의 마지막 궁중 화가, 풍속화가로 성공하다
- ④ 순수 미술의 극치를 이룬, 조선 화단의 자존심
- ⑤ 사진보다 선명한 그림, 시대를 고발한 화가

5.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답변을 요약하고 있다.
- ② 인터뷰의 취지를 밝히며 구체적인 대안을 묻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 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자동차 구성 요소의 기능’에 착안하여 ‘동아리 대표의 역할’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착안점		연상한 내용
착안 대상	대상의 주된 기능	
① 	주행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 냄. 〈엔진〉	→ 동아리가 원활히 운영 되도록 추진력을 발휘한다.
② 	상황에 맞게 주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함.	→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위의 도움을 이끌어 낸다.
③ 	계획한 경로에 따라 주행 방향을 조정함. 〈핸들〉	→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에 맞추어 활동 방향을 조정한다.
④ 	지속적으로 회전 하여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함. 〈바퀴〉	→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한다.
⑤ 	야간에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시야를 확보해 줌. 〈전조등〉	→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7. 다음은 여행 중 작성한 일기의 일부이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에 시구를 넣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내 인생의 첫 도보 여행. 청명한 10월 하늘을 머리에 이고 나는 시골길을 걸었다. 수확을 기다리는 벼들이 시원한 가을 바람에 잔잔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길가엔 코스모스가 한창이었다.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코스모스는, 미소 지으며 손 흔드는 친구처럼 반가웠다. 그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다정하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시구가 떠올랐다.

㉠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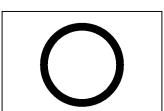
- 앞부분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포함할 것.
- 의인법과 도치법을 활용할 것.

- ① 노란 벼 이삭과 함께 미소 짓는 코스모스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
- ② 하늘은 높아 가고 벼들이 익어 가네
반가움 때문인가 내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 ③ 무리 지어 피어서 더 아름다운 꽃들
붉은 단풍보다 더 붉은 꽃들의 향연
- ④ 내내 끓어오르던 내 마음을 식히며
나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네 바람은
- ⑤ 반가운 친구와 함께 걷는 그 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았네

8. 다음은 독서 모임 게시판에 올릴 글의 일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맥락’이라고 합니다. 대상의 참된 의미는 그 맥락 속에서만 제대로 ㉠ 이해되어질 수 있지요.

 원편의 그림을 볼까요? 여기 있는 ‘O’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O’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0123…’, ‘…ㅁㅅㅇㅈ…’, ‘…NOPQ…’, ‘□○△◇’처럼 여러 가지 맥락을 상상해 보고, 그 속에서 ‘O’의 의미를 발견해 봅니다. ㉡ ‘O’는 그 맥락에 따라 숫자 ‘0’, 한글 ‘ㅇ’, 알파벳 ‘O’, 도형 ‘○’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O’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O’의 안도 밖도 아닌,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락이지요. ㉢ 글을 쓸 때도 예상 독자의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 정확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맥락을 통해 글의 참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맥락 읽기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 그러나 이번 모임에서는 맥락 읽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 ①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이해될’로 고친다.
- ②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앞에 ‘우리가’를 추가한다.
- ③ ㉢은 글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수식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으로 고친다.
- ⑤ ㉤은 앞 문장과의 의미 관계를 고려해서 ‘그래서’로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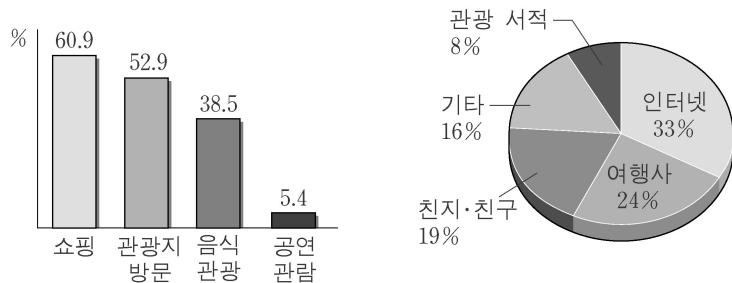
언어 영역

[9~10] ‘공연 예술의 관광 상품화’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가) 외국인 관광객 설문 조사

1. 방문 기간 중 활동(중복 응답) 2. 여행 정보를 얻은 곳



(나) 신문 기사

관광 상품으로 성공한 공연이 매우 적은 가운데 연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한 공연 ‘○○’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관객도 80만 명에 유판하는데, 그중 외국인 관광객이 80% 이상이다. ‘○○’의 성공 요인으로는 비언어극으로 언어 장벽을 극복했다는 점, 관객을 참여시키는 쌍방향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 상모돌리기와 같은 볼거리와 희극적 요소를 강화하여 작품을 꾸준히 개선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 신문

(다) 인터뷰 자료

“연중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정으로 공연을 하지 않으면 공연 예술의 관광 상품화는 불가능합니다. 영세한 극단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법률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고, 해외 홍보나 마케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극단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 공연 기획사 관계자

<보기 2>

- ① 공연 상품의 경제적 효과와 외국인의 공연 관람 실태를 고려 할 때 공연 예술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② 전용 상설 공연장의 확보, 세금 감면 및 법적 지원 등 상품화 과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③ 대사가 많은 공연의 경우 외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거나 자막 시설을 설치하는 등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단조로운 공연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객 참여 요소를 개발하는 등 제작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은데, 극단 자체만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넷 홍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9. <보기 1>을 자료로 활용하여 <보기 2>와 같이 내용을 생성하였다. 내용과 자료의 연결이 적절한 것은?

- ① ㉠ : (가)-1과 (다)
- ② ㉡ : (가)-2와 (나)
- ③ ㉢ : (다)
- ④ ㉣ : (가)-1과 (가)-2
- ⑤ ㉤ : (가)-2와 (다)

10. <보기 2>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개요>

주제 : 공연 예술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I. 문제 제기

ⓐ : <보기 2>의 ㉡을 참고하여 ‘전용 상설 공연장 부족’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 한다.

II. 문제점 분석

1. 단조로운 공연 내용
2. 공연의 볼거리 부족
3. 언어 장벽의 문제
4. 홍보 및 제도적 여건 미흡
5. 상품화 과정에서의 세금 감면

ⓑ : 내용 관계를 고려하여 Ⅱ-1에 포함시킨다.

III. 개선 방안

1. 공연 관계자 차원
 - 가. 상품화를 위한 노력
 - 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2. 정부 차원
 - 가. 홍보에 관한 여론 조사 실시
 - 나. 전용 상설 공연장 건설 등 상품화의 토대 구축

ⓒ : 내용의 논리적 전개를 고려하여 Ⅲ-1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 <보기 2>의 ④을 참고하여 ‘공연 내용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구체화한다.

ⓔ : <보기 2>의 ⑤을 참고하여 ‘인터넷 홍보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바꾼다.

IV. 맺음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1. <보기>의 ⑦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보기>

청자에게 명령 · 요청 · 부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명령문 대신 “창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라는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효과는 ⑦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얻을 때도 있다.

- ① 가는 길에 이 편지 좀 부쳐 주세요.
- ②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동네에는 꽃집이 영 없을 것 같지?
- ④ 이게 몸에 좋다니 한입에 죽 들이켜라.
- ⑤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더 쉽지 않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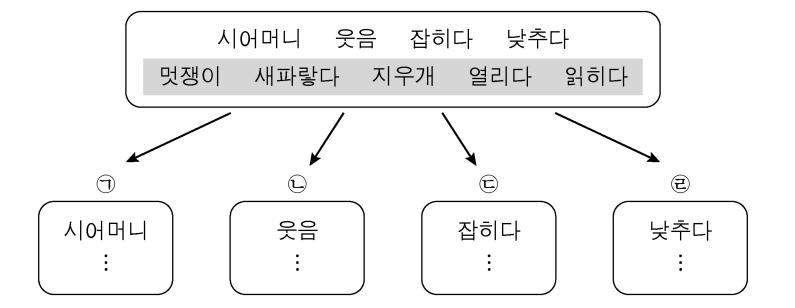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⑦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 예) 명사 ‘어머니’에 ‘시-’가 붙어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 예) 동사 ‘웃다’의 ‘웃-’에 ‘-음’이 붙어 명사 ‘웃음’이 된다.
 -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 예) ‘잡다’에 ‘-히-’가 붙어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처럼 바뀐다.
 - ㉣ 위의 ⑦과 ㉢ 모두에 해당함.
 - 예) 형용사 ‘낫다’에 ‘-추-’가 붙어 동사 ‘낫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낫다’와 같은 문장이 ‘내가 방 온도를 낫추다’처럼 바뀐다.

<보기 2>



- ①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⑦에 들어간다.
- ② ‘파랗다’에 ‘새-’가 붙은 ‘새파랗다’는 ⑦에 들어간다.
- ③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에 들어간다.
- ④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에 들어간다.
- ⑤ ‘읽다’의 ‘읽-’에 ‘-히-’가 붙은 ‘읽히다’는 ㉣에 들어간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뱃사공 삼바우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 두칠, 천달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다. 얼마 후 두칠은 부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용팔과 천달에게서는 아직 소식이 없다.

첫서리가 보얗게 내린 어느 날 아침나절, 읍으로부터 오는 길에 멀리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났다. 삼바우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갖다 대 놓고, 가까워 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안면이 있는 자전거였다. ⑦ 빨간 자전거였다. 편지가 오는구나, 삼바우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용팔이 한테서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낫이 선 사람이었다.

“여보이소, 저 마을이 강동리 이구 맞지요?”

“야, 맞구마. 편지 어디서 왔는교?”

“양봉재라는 사람 있능게?”

“야, 있구마, 천달이 저거 어르신네구마. 어디서 왔는교?”

“에에…….”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달이 한테서 왔는교?”

“아니요, 군수한테서 왔구마.”

“군수라니요?”

“군수도 모르는게? 고을 원님 말이구마.”

“구운수?”

삼바우의 두 눈은 통방울처럼 휘둥그레진다.

“정말로 가능계? 부러 가능계?”

“이 양반 보소.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장난하로 맹기는 사람인 줄 아는게? 허허…….”

“하아, 군수한테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삼바우의 벌어진 입은 쉬 다물리지가 않는다. 배달부의 자전거를 번쩍 들어 배에 올려 주며,

“나한테는 없는교, 편지? 배(裴)삼바우구마.”

“그 집 하나뿐이구마.”

서운했다. 그러나 삼바우는 노를 저으면서도, 군수한테서 편지가 오다니, 양 생원 인제 팔자 고치는 거 아니가? 곧장 감격스러웠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 생원한테 군수라니…… 너무 당치가 않아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 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빨칵 뒤집히었다. 순녀의 피나는 ⑦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끊었다. 대열이도 덩달아 빼이빼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쩌고…… 빼다귀가 뭐 어쩌고 어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④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임락 이을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텔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 생원네는 강을 건너 ④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이 어디 가노?”

“읍내 간다.”

“읍내가 머꼬?”

“.....”

“앙? 엄마.”

“읍내가 읍내지 뭐까 봐. 저어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며 하로 가노?”

“.....”

“앙?”

“.....”

[A]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대열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

“하부이! 우리 며 하로 가노?”

“.....”

“하부이 니도 모르나?”

“.....”

벌그레 부어 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때름,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킁킁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 준다.

그날 저녁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⑤ 별건 불길이 구름을 태우며 온 벌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강물도 꽃자주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 가는 황혼 속으로 양 생원네는 돌아왔다. 양 생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반듯한 상자를 하나 받쳐 안고 있었다. 상자는 하얀 보에 싸여 있었다.

(중략)

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 와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가노 말이다. 이런 소리를 주워섬기는 노인도 있고, 어떤 노파는 관SEMBO사알 하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기도 했다. 갑분이의 텁스런 얼굴에도 그늘이 서리었고, 두칠이의 도깨비 같은 얼굴도 오늘은 거기 섞여 있었다. 그러나 두칠이만은 입 언저리에 얇궁은 웃음을 띠고 있다. 흥, 유골이라! 저 안에 든 것이 천달이 뼈다귀라 그 밀씀이지, 흥! 흥! 목덜미로 흘러내린 뱀들뱀들한 살점이 곧장 실룩거린다. 누렁이란 놈도 물가에 내려서서 주동 이를 하늘로 쳐들고 켕경겅 짖어 댄다.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는 잠시 겉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양 생원의 손목을 가서 붙잡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한숨을 짓는 노인. 위로를 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노파들. 순녀의 울음을 달래며 찔끔찔끔 눈물을 짜는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옷고름에 물코를 푸는 큰애기가 있고, 우는 아이가 있고, 짖는 개가 있고……. 그러나 두칠이는 연방 얼굴을 실룩거리며,

“며 보통이지, 보통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하나 남은 눈깔에도 눈물은 어리어 있었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1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와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⑤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14.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마을 밖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 ② ㉡: 천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순녀의 기대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④ ㉣: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다.
- ⑤ ㉤: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5. [A]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이 없는 어른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군.
- ② 철없는 아이와 권위적인 어른들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군.
- ③ 어른들의 침묵을 통해 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지속적으로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아이를 통해 각종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군.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쟁 소설은 전쟁의 비극성을 다각도로 드러낸다.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처로 구체화된다. 특히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 ① 군수의 편지, 유골 상자 등은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 소재군.
- ② 하나님은 두칠의 눈은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하겠군.
- ③ 천달의 유골을 보며 중얼거리는 두칠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④ 천달의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가 들끓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천달의 유골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두칠의 모습은 그가 마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6

언어 영역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⑦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책상은 네모이다’라는 판단이 지각 내용과 일치하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한다.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준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에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을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이러한 정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기준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한다.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1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핵심 개념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 ⑤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변증법적으로 절충하고 있다.

18. ⑦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은 항상 참이다.
- ② 우리의 감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 ③ 우리는 사물의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의 주관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 ⑤ 우리의 감각적 지각 능력은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19. 위 글에서 <보기>의 ⑧와 ⑨에 각각 관련되는 것은?

- <보기>—
- 17세기에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舌石)이라는 화석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그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⑧ 판단을 내렸다.
 - 20세기 초에 베게너는 지질학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과거에 한 대륙이었다가 나중에 분리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대륙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통설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⑨ 판단을 내렸다.

- | (a) | (b) |
|-------|-----|
| ① 대응설 | 정합설 |
| ② 대응설 | 실용설 |
| ③ 정합설 | 대응설 |
| ④ 정합설 | 실용설 |
| ⑤ 실용설 | 정합설 |

20. 위 글에서 언급한 여러 진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학이나 논리학에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참인 명제도 있는데, 그 명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응설에서는 발생한다.
- ②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판단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③ 새로운 주장의 진리 여부를 기준의 이론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준 이론 체계의 진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④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관념은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⑤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진리 여부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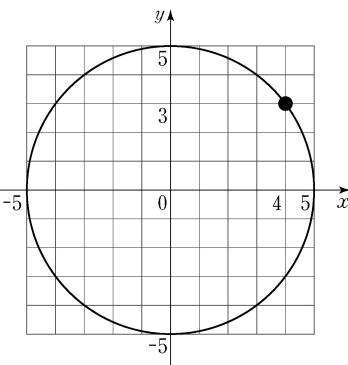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⑦ **데카르트**는 수학 분야에서도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 『방법서설』의 부록인 ‘기하학’에서 데카르트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좌표’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개념으로 그는 해석(解析) 기하학의 토대를 놓았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 수학자 라그랑주는 이에 대해 “기하학과 대수학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는 두 학문의 발전이 느렸고, 적용 범위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학문이 길동무가 되어 함께 가면서 서로 신선한 활력을 주고받으며 완벽을 향해 빠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데카르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직교하는 직선들이 만드는 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른다. 통상적으로 이 좌표계의 가로축은 ‘ x 축’, 세로축은 ‘ y 축’이라고 하며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을 ‘원점’이라고 한다.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하려면 x 축과 y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으로 원점을 지나도록 ‘ z 축’을 세우면 된다. 데카르트는 방 안에 날아다니는 파리의 순간적인 위치를 나타낼 방법을 찾다가 이 좌표 개념을 생각해 냈다고 한다.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 각각에서 파리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알면 파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을 때, “동쪽으로 세 블록, 북쪽으로 두 블록 가시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데카르트의 발견은 좌표를 이용하여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좌표 평면의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하면 원이 얻어진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x, y) 는 원의 방정식 $x^2 + y^2 = 5^2$ 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 원 위의 $(4, 3)$ 이라는 점은 $4^2 + 3^2 = 5^2$ 이므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평면 위의 도형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다. 이 상황에서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자 직선, 원, 타원 등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근대적인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된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였다.



21.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 ① 어떤 점의 좌표로 그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좌표 평면 위의 원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좌표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 찾을 수 있다.
- ④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원의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있다.
- ⑤ 어떤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좌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22. ⑦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정식의 해법을 수학의 독립된 분야로 발전시켰다.
- ② 도형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 ③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연역적 증명의 방법으로 설명했다.
- ④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학적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 주었다.
- ⑤ 그림을 그리지 않고 대수학을 푸는 보편적인 원리를 구축했다.

2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그림과 같은 건물에 있는 31개의 사무실에 **데카르트 좌표계**를 활용하여 호수를 지정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사무실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임을 주목한다. 건물의 모퉁이 O점을 원점으로 삼고 k 축은 위쪽, l 축은 북쪽, m 축은 서쪽으로 향하도록 설정한다. 각 사무실의 8개의 꼭짓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짓점의 좌표 (k, l, m) 을 세 자리의 수 ‘ klm ’으로 만들어 그 사무실의 호수로 정한다. 가령, 원점에 접한 사무실은 111호, 그 위층은 211호이다. 그 밖의 몇 개의 사무실의 호수는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 ① 건물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들로 구성된 데 착안하여 데카르트 좌표계를 활용하기로 하였군.
- ② k 축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니 사무실의 층이 사무실 호수의 백의 자릿수가 되었군.
- ③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의 거리에 따라 사무실의 호수가 정해지는군.
- ④ A 사무실의 꼭짓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짓점의 좌표는 $(5, 3, 3)$ 이군.
- ⑤ 벽면이 맞닿은 두 사무실은 호수를 구성하는 세 개의 수 중 두 개가 같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는다. 그가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곳을 우연히, 그리고 매우 쉽게 찾는 장면에 대해서도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실상 어느 관객도 그와 함께 차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기본질적인 부분을 ⑥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을 삽입하는 것,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사실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함을 뜻한다.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⑦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영화 역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 ‘영화적 관습’이라고 한다. 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돼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돋는다.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확립된 관습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⑦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불필요한 사건을 개입시켜 극의 전개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단서나 예고 없이 시간적 순서를 뒤섞어 사건의 인과 관계를 ⑧ 교란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다.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⑨ 수시로 일어난다. 이는 홍행을 목적으로 오락적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누벨바그의 관습 파괴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⑩ 근래 액션 영화의 감독들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처음 이러한 관습 비틀기를 접한 관객들은 당혹스러웠겠지만, 일단 여기에 익숙해지면 느긋하게 ‘악당의 귀환’을 기대하게 된다.

파괴된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영화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적 관습은 관객과 감독이 소통하는 데 기여한다.
- ② 영화 속 현실은 영화 고유의 재현 방식을 통해 변형된 현실이다.
- ③ 영화적 관습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고정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 ④ 관객은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영화적 관습에 익숙해진다.
- ⑤ 새로운 재현 방식의 시도와 수용은 영화적 관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5. ⑦과 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영화의 현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다.
- ② ⑨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관객의 기대 심리를 역이용 하기도 하였다.
- ③ ⑦은 ⑨과 달리 관객에게 오락적쾌감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 ④ ⑨은 ⑦과 달리 관습적인 재현 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였다.
- ⑤ ⑦과 ⑨ 모두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⑨~⑪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 83 거리(낮)

지연, 설레는 표정으로 뛰어온다. ⑨ 지연이 큰길가로 나오자
마자 택시가 와서 선다.

S# 84 놀이 공원 인근(낮)

⑩ 준호,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급히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⑪ 카메라, 흔들리며 상황을
보여 준다.)

S# 85 놀이 공원 입구(늦은 오후)

지연,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얼굴로 서성인다. ⑫ 공원
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입구가 닫히고,
‘폐문’이란 안내판이 걸린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중략)

S# 107 병실(낮)

지연, 꽃병에 탐스러운 장미꽃을 꽂고 있다.

지연: (꽃을 꽂으며) 며칠 있으면 퇴원이네.

준호: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 고마워, 지연아.

준호, 지연의 손을 다정하게 잡는다. ⑬ 마주 잡은 두 손이
결혼식에서 반지를 끼워 주는 두 손과 중첩된다.

S# 108 몇 개월 후 결혼식장(오후)

지연과 준호, 하객들의 축복 속에 활짝 웃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퇴장한다. (카메라, 점점 위로 올라간다.)

- ⑨는 현실에서는 우연에 해당하지만 영화에서는 당연시 되는 설정이군.
- ⑩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 현실에서 자주 겪기 힘든 상황을 설정한 것이군.
- ⑪는 진박한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제시하기 위한 카메라 기법이군.
- ⑫는 등장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삽입한 것이군.
- ⑬는 장면 연결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생략한 것이군.

언어 영역

27. ①~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 ② ②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③ ③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 ④ ④ :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 ⑤ ⑤ :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난다. 태어나서 처음 습득한 언어를 L1 이라 하고 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L2라 할 때, 그들에게 한국어는 L2가 된다.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⑥ 중간 언어라고 한다. 중간 언어의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한국어가 L1인 사람과 L2인 사람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랑그란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칙의 총체를 이른다.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이 의사소통에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중간 언어는 L2를 목표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개별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랑그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정할 수 없다. L1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L2를 배우는 학습자 간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이는 그들이 습득한 L2 규칙을 활용해서 이지 중간 언어가 같아서는 아니다.

L2 학습자는 오류를 생성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오류를 성공적인 L2 습득을 위해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언어 발달의 자연스러운 신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⑦ L2 학습자의 오류도 같은 관점으로 해석한다. 많은 경우 오류는 L1의 부정적 간섭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오류 중에는 L1이나 L2의 어느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이는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중간 언어가 실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오류는 L2 습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⑧ 유아의 언어 체계도 성인의 언어에 비해 단순하다는 점에서는 중간 언어와 같다. 하지만 두 언어 이상이 혼종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 언어와 다르다. 또한 유아의 언어는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하지만,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는 발달할 수 없으며 발달 정도도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L2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중간 언어가 형성될 수 있다.
- ② 중간 언어는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 ③ L1이 같은 언어 집단은 동일한 랑그를 가지고 있다.
- ④ 중간 언어 간의 이질성은 한 언어 내의 방언 간의 이질성과 그 성격이 다르다.
- ⑤ 유아는 L2 학습자와 달리, 배우는 언어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습득한다.

29. ⑦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L2 학습자에게 가르칠 내용을 교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③ L2 학습 과정에서 자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 ④ L2의 학습 기간이 같은 학습자들에게서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⑤ L1과의 비교를 통해 부정적 간섭의 요인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0. <보기>의 ⑨를 ①, ②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9세기 말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늘어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함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졌다. ⑩ 이 언어는 여러 언어의 특성이 혼합된 제3의 언어였다. 초기에는 어순이 불안정하고 어휘의 수가 적으며 문법도 단순하였으나, 이들은 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의 수도 늘어나고 문법도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언어에 비해서는 단순했다.

- ① ⑨와 ⑩은 혼종된 언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② ⑨는 정교화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⑩과 같다.
- ③ ⑨와 ⑩은 단순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④ ⑨는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는 점에서 ⑩과 다르다.
- ⑤ ⑨는 발달의 목표가 되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⑩과 같다.

10

언어 영역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⑦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⑤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⑥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끊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④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⑤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C]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D]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던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E]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2. ⑦~⑩ 중 <보기> ④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 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④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鵠)을 애태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원, 「창애(蒼厓)에게」 –

- | | | |
|--------|--------|--------|
| ① ⑦, ⑨ | ② ⑦, ⑩ | ③ ⑧, ⑩ |
| ④ ⑨, ⑩ | ⑤ ⑨, ⑩ |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빛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언어 영역

3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릇’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 ②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릇’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 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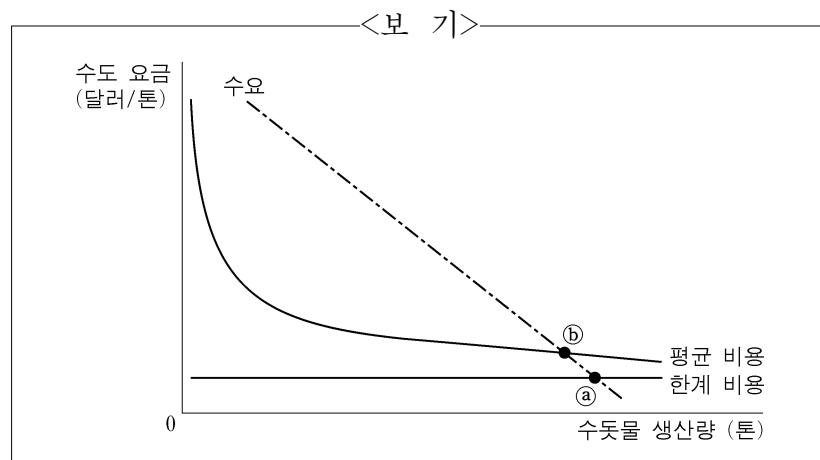
[A]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㉙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㉚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 된다.
-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② ②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③ ③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⑤ 요금 결정 지점이 ①에서 ②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37. 문맥상 ㉠~㉚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① ㉠: 투입(投入)되는 | ② ㉡: 초래(招來)한다 |
| ③ ㉢: 추정(推定)하면 | ④ ㉣: 지급(支給)하는 |
| ⑤ ㉤: 감소(減少)하는 | |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풀은 ①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쓸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결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2] 어째서 상고 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②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냇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3]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셨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시지 않았던가! 성인(聖人)도 모두가 함께 하는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올바르고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 이용휴, 「수려기(隨廬記)*」 -

* 수려기: '따르며 살리라'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

(나)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닫는 대로

③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쁜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④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고운 꽂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텐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쌩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볼가
천만 첨이나 쌩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슬슬 풀려
삼동설한 쌩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A]

-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가」 -

* 황연대각: 환하게 모두 깨달음.

* 화용월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④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青)하리라

[B]

- 이황, 「도산십이곡」 -

*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낚추어 이르는 말.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3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는 풀, 그림자, 메아리 같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람 역시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음을 유추했다.
- ② [2]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별의 운행과 냇물의 흐름을 들어서 밝혔다.
- ③ [3]에서는 우임금과 공자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④ [4]에서는 자문자답을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 ⑤ 글의 중간 중간에 '따름'의 여러 측면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였다.

40.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텐동어미는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텐동어미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채비를 하겠군.
- ③ 텐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청춘과부는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렸군.
- ⑤ 청춘과부는 가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군.

41. [A]와 [B]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③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 ② ㉡은 하늘의 별이 지상의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어 준다는 의미이다.
- ③ ㉢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④ ㉣은 성숙한 인간이 가진 안목을 의미한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윽고 백 소부가 백 소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오늘 너를 위해 좋은 배필을 얻었으니 지극한 소원을 이루었도다. 아비의 명을 사양치 말고 이 시에 화답하여 맹약을 정하라.”

하니, 백 소저가 얼굴에 수줍은 빛을 띠고 오래 주저하다가 화선지 한 폭에 ㉠ 오언 절구 두 수를 쓰더라.

봉황새가 단산(丹山)에서 나왔거늘
깃들인 곳 벽오동 아니로다.
날개가 꺾어짐을 탄식지 말지니
마침내 하늘에 오름을 보리라.

무성함은 고송(高松)의 자질이요
푸르름은 고죽(孤竹)의 마음이라.
사랑스럽다, 세한(歲寒)의 절조여!
바람과 서리에도 굴하지 않네.

백 소부가 여러 번 낭독하다 감탄하여 가로되,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선의 시와 더불어서로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원 급제하리로다. 그러나 시의 뜻이 스스로 송죽의 절조에 비함은 어찌 된 일이뇨? 후에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렵노라.”
이때 김소선은 대면한 백 소저의 용모를 보지는 못하나, 시구를 듣고는 그 청아함을 사랑하고 품은 뜻에 감복하여 크게 감탄 하더라. 백 소부가 김소선의 시를 화선지에 베풀어 백 소저에게 주며 가로되,

“반드시 이 시를 깊이 간직하였다가 후에 신물(信物)을 삼으라.”

하고, 또 소저의 쓴 시를 김소선에게 전하여 가로되,
“그대 또한 이 시를 간직하였다가 부귀하게 되면 이 자리의 맹약을 잊지 마시게.”
하니, 소선과 소저가 절하고 명을 받더라.

[중략 줄거리] 세력가인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정훈 사실을 알면서도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한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외삼촌 석 사랑을 통해 그 뜻을 전하나 백 소부는 단호히 거절한다.

석 사랑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물러나와, 배득량에게 가백 소부의 말을 자세히 전하니 득량이 낙담하더라. 이윽고 배연령에게 간청하여 세력으로 억지로 혼인하고자 하더라. 배연령이 평소 득량을 가장 사랑한 고로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니, 이에 석 사랑을 불러 가로되,

“우리 집이 그대의 제부와 벼슬을 함께 하는 우의가 있고 문벌도 서로 걸맞으니, 혼인을 맺어 가문의 친밀함을 더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오? 그대는 나를 위해 백 소부에게 말하여 혼약을 이루고 속히 좋은 결과를 전할지어다.”

사랑이 이튿날 다시 백 소부의 집에 가 배연령의 말을 전하여 가로되,

[A] “누이 말을 들은즉 생질녀와 정한 배필은 눈먼 폐인이라 하더이다.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를 두고 반드시 이런 폐인을 사위로 삼고자 하니 어찌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리오? 이는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막 까치의 짹으로 삼음과 같으니, 깊이 애석하도다. 지금 배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늘, 생질녀의 어짊을 듣고 그 아들 득량을 위하여 반드시 혼약을 맺고자 하니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 바라건대 다시 깊이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소부가 듣자마자 크게 노하여 가로되,
“어찌 식견 없는 말을 내는고? 배연령이 아무리 하늘을 태울 기세가 있고, 바다를 기울일 수완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노라. 더구나 딸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으즉, 폐인이며 폐인이 아님을 논할 것 없이 자네가 간여할 바가 아니로다.”

시랑이 크게 부끄러워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 배연령을 뵈어 가로되,

“백 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니, 온갖 구실로 설득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거늘 연령이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백문현이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가?”

드디어 공부 좌시랑 황보박을 부추겨서, 평장사 백문현이 비밀히 변방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피한다고 무고(誣告)하게 하니, 천자가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형리에게 부쳐 장차 죽이고자 하더라. 여러 대신이 교대로 상소를 올려 지극히 간하니 천자의 노여움이 누그러져서 소부의 작위를 거두고 아주 참군으로 강등시켜 당일로 압송케 하니라. 조명(詔命)*이 한번 내리매 만조백관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 간하지 못하고, 백 소부의 집은 상하가 다 통곡함을 마지아니하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

* 시참: 우연히 지은 시가 이상하게도 뒷일과 꼭 맞는 일.

* 조명: 천자의 명령을 적은 문서.

4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모의 개입 없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개인의 혼사 문제가 가문의 성쇠와 관련되고 있다.
- ③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 ④ 대신들 간의 다툼으로 천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 ⑤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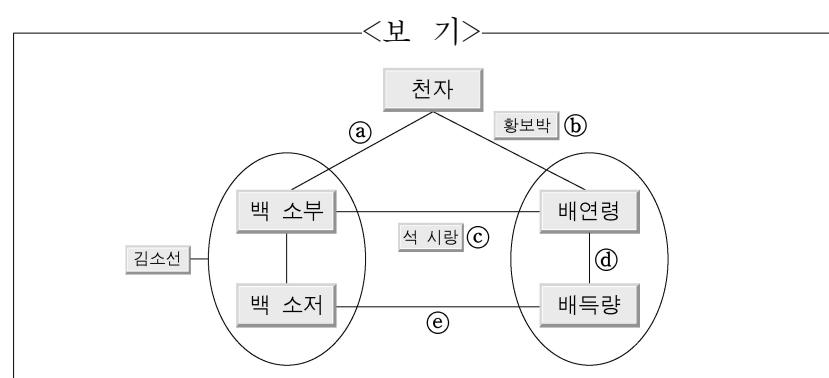
44. ㉠과 관련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김소선과 백 소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 ② 시의 내용으로 보아 백 소부가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시에 대한 백 소부의 평으로 보아 백 소부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 소부가 김소선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백 소부가 ‘시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장차 백 소부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5.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 시랑은 생질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 ② 석 시랑은 생질녀와 혼약을 맺은 상대를 폄하하고 있다.
- ③ 석 시랑은 비유를 활용하여 백 소부의 성품을 미화하고 있다.
- ④ 석 시랑은 권력자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그에 편승하고 있다.
- ⑤ 석 시랑은 장차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암시하며 백 소부를 설득하고 있다.

46. 위 글의 인물 간 관계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①~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 백 소부는 천자의 노여움을 사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② ②: 황보박은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좌고우면(左顧右盼)하고 있다.
- ③ ③: 백 소부와 배연령은 석 시랑을 통해 막역지우(莫逆之友)가 되었다.
- ④ ④: 배득량은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 ⑤ ⑤: 배득량은 백 소부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놓여 있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피아노는 전반의 움직임에 따라 내장 컴퓨터가 해당 전반의 소리를 재생하는 악기이다. 각 전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내장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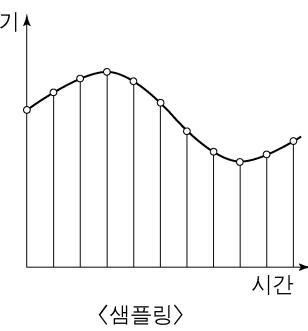
전반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각 전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 각 센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하는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센서는 전반의 놀림 동작을 감지하고, 나머지 둘은 전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첫 센서에 의해 전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내장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CPU)가 해당 전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온다.

전반을 누르는 세기에 따라 음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두 센서를 이용한다. 강하게 누르면 전반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져 두 번째와 세 번째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 간격이 줄어든다. CPU는 두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음의 크기가 커지도록 소리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가 끝난 소리 데이터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변환 장치(DAC)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고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 피아노 소리로 재현된다.

그렇다면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각 전반의 소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로 바뀐 것일까? ① 각 전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녹음된다. 샘플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샘플을 얻는 것이다.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진다. 하지만 각 주기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에 샘플링 주기가 짧아지면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데이터도 많아진다.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이다. 양자화 표는 일반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변화 폭을 일정한 수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 이진수로 표현되는 부호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할당한 표이다.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부호에 사용되는 이진수의 자릿수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하나의 부호를 3자리의 이진수로 나타낸다면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000~111까지의 부호가 할당된 8개가 된다. 즉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 8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자릿수가 늘어나면 양자화 구간의 간격이 좁아져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 데이터의 양은 커진다. 이렇게 전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통해 변환된 부호의 형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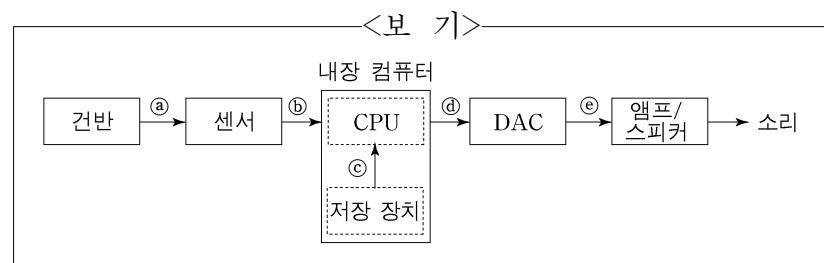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로 미리 녹음되어 저장된다.
- ② 각 전반에는 같은 수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 ③ 전반의 놀림 동작과 세기는 동시에 감지된다.
- ④ 소리 파동 모양의 정보는 샘플링을 통해 얻는다.
- ⑤ 양자화 구간마다 할당된 부호는 서로 다르다.

48. <보기>는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전반의 놀림과 움직이는 속도
- ② Ⓜ: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
- ③ Ⓝ: 해당 전반의 소리 데이터
- ④ Ⓞ: 처리된 소리 데이터
- ⑤ Ⓠ: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

49. ⑦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리 파동의 모양은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결정한다.
- ② 부호의 자릿수는 소리 표현의 세밀한 정도를 결정한다.
- ③ 부호의 자릿수는 양자화 구간의 개수를 결정한다.
- ④ 샘플의 측정값은 양자화를 통해 부호로 바뀐다.
- ⑤ 샘플링 주기는 재생되는 음질에 영향을 준다.

50. ①과 ④의 의미 관계를 A, ②와 ⑤의 의미 관계를 B라고 할 때, A와 B의 예로 옳은 것은? [1점]

	A	B
①	동물: 개	나라: 국민
②	비행기: 날개	복숭아: 과일
③	버스: 택시	구두: 신발
④	고양이: 고리	사람: 인간
⑤	아들: 딸	옷장: 가구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